***Session 1 Why John 13-17 Is So Important In This Hour of History* 제1강 이 역사적인 시간에 왜 요한복음 13-17장이 이토록 중요한가**

1. Jesus will rescue His Beloved people from being lukewarm (Rev. 3:18-20)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미지근함으로부터 구출하실 것이다 (계 3:18-20)
	1. Jesus promised the church of Laodicea deep fellowship with Him. He required that they repent of being lukewarm and promised to give them spiritual gold and food in dining with them (Rev. 3:20).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분과의 교제를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미지근함을 회개하길 요구하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먹으며 영적인 음식과 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계 3:20).

16“…you are lukewarm…18I counsel you to buy from Me gold refined in the fire…19…be zealous and repent. 20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opens the door, I will…dine with him… (Rev. 3:16-20)
16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 18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19…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 (계 3:16-20)

* 1. ***Buy from Me gold***: We are repenting in order to “buy gold,” that is, to engage in the God-ordained process of acquiring a deep relationship with God as highlighted in John 13-17. In “buying” gold, we do not “earn” it, but we invest ourselves in a costly way to position ourselves to receive “gold.” Isaiah called us “to buy spiritual food” by listening and talking (coming to Him in conversation).
	**나에게서 금을 사라**: 우리는 “금을 사기” 위해 회개한다. 이것은 요한복음 13-17장에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획득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금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일해서 번다”는 것이 아니라, “금”을 거저 받기 위해서 자세를 취한다는 것으로, 값비싼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사야는 듣고 말함으로써 (대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 음식을 사라”고 우리를 불렀다.

1“Everyone who thirsts…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2…Listen carefully to Me…
let your soul delight in abundance. 3Incline your ear, and come to Me…” (Isa. 55:1-3)
1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 나아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3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사 55:1-3)

* 1. ***Dine with him***: To eat together speaks of deep fellowship as the Spirit teaches and tenderizes us. The teaching in John 14-16 followed the physical meal the disciples shared with Jesus in John 13. Thus, we eat spiritual food—the truths, promises, and commands that He highlighted in John 14-17.
	**그와 함께 먹으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는데 이 시간 동안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요 13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제적 식사를 나눈 후에 요 14-16장의 가르침이 따라 나온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요 14-17장에서 하이라이트하는 진리들, 약속들, 명령들이라는 영의 양식이다.
	2. On March 3, 2021, I had an open vision of ***“a door opening to a room that was filled with light.”***
	I had been praying for grace to open the door of my heart and of our spiritual family more widely to Jesus and to “dine with Him” (Rev. 3:20). His message in this vision was, *“As My people open the door of their heart to Me, then I will open the door of My glory to them”* *(Rev. 4:1).* God’s people will encounter His glory byengaging in the Trinitarian conversation as highlighted in John 13-17.
	2021년3월 3일, 나는 “**빛으로 가득 찬 방을 향해 열리고 있는 문**”에 대한 열린 환상을 보게 되었다. 나는 내 마음과 우리의 영적 가족들의 마음의 문이 예수님을 향해 좀 더 활짝 열리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계 3:20)것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왔던 중이었다. 이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의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면, 나는 나의 영광의 문을 열 것이다”** (계4:1)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 13-17장에서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과의 대화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것이다.
	3. In this session, I want to alert people to the significance of the ***Upper Room Discourse*** (Jn. 13-17).
	One of its primary themes is to give God’s people insight into how the Father, Son, and Spirit relate to one another as the ***model and source*** of how the redeemed are to relate to God and one another.
	It defines what it means to walk as overcomers who enjoy the end-time miracle of unity (Jn. 17).
	이 강의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다락방 담론** (요 13-17)의 중요성에 대해 깨우치길 원한다. 주요한 주제들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서로 관계하시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데, 이것은 구속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또 서로 간에 관계하는지의 **모델이자 근원**이 된다. 이것은 마지막 때 연합의 기적 (요 17)을 누리는 이기는 자들로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4. Throughout church history the subject of the Trinity has been a theological debate seemingly reserved for scholars. But before Jesus returns, the Spirit will highlight the glorious reality of our participation and conversation with the Trinity as one primary emphasis in the body of Christ.
	교회 역사를 통해 삼위일체의 주제는 겉으로는 학자들만을 위한 신학적 논쟁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한가지 주된 강조점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영광의 실체를 하이라이트하실 것이다.
	5. John 13-17 is the greatest teaching given by the greatest teacher in history! My guess is that less than 1% of all the believers throughout church history have engaged with these 5 chapters in a deep and sustained way. In my opinion, it is not possible that Jesus would allow His deepest teaching to be engaged by so few. I believe that millions in the body of Christ in the nations will engage in it.
	요 13-17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가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나의 추측은 교회 역사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 중 1% 미만 만이 깊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이 다섯 장에 집중해 왔다는 것이다. 나의 의견은 예수님이 그분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소수만이 집중하라고 허용했으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열방의 그리스도의 몸인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집중할 것이라고 믿는다.
	6. John 13-17 is a long neglected “gold mine” in God’s kingdom. Let’s go on a treasure hunt together. John 13-17 is a premier place in Scripture to drink from “the river of His pleasure” (Ps. 36:8).
	What is the river of God’s pleasure? It is when God reveals God to the human heart.
	요 13-17장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랫동안 소홀히 한 “금광”이다. 우리 함께 그 보물을 찾으러 가자. 요 13-17장은 “주의 복락의 강물”(시 36:8)을 마실 수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주의 복락의 강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하나님을 계시할 때이다.

8They are abundantly satisfied…You give them drink from the river of Your pleasures. (Ps. 36:8)
그들이 …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시 36:8)

1. Why is John 13-17 so important to the end-time church?
요한복음 13-17장이 왜 마지막 때 교회에 그렇게 중요한가?
	1. Millions of believers will be equipped by the truths, promises, commands, and authority set forth in these 5 chapters to be overcomers walking together as Jesus’ prepared Bride (Rev. 19:7) in context to the most intense persecutions, temptations, betrayals, and difficulties in history (Mt. 24:21).
	The truths in John 13-17 define the way of the heart of the overcoming Bride in the end times.
	역사상 가장 심한 핍박, 유혹, 배신과 어려움(마 24:21)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준비된 신부 (계 19:7)로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수백만의 믿는 자들이 이 다섯 장에 명시된 진리들, 약속들, 명령들, 그리고 권세들로 준비될 것이다. 요 13-17장의 진리들은 마지막 때에 이기는 신부의 마음의 길을 정의한다.
	2. In September 1982 in Cairo, the Lord said to me, ***“I will change the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Christianity in the earth in one generation.”*** The changing of the expression of Christianity begins more internally than externally by engaging in John 13-17, leading to external changes.
	1982년 9월 카이로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한 세대 안에 이 땅의 기독교의 이해와 표현을 바꿀 것이다.”** 기독교의 표현의 변화는 외적인 것 보다는 요 13-17장에 집중함에 의한 내적인 것으로 시작할 것인데, 이것은 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3. The truths, promises, commands, and authority set forth in John 13-17 will equip Jesus’ disciples to walk in mature joy (15:11) and not stumble or fall away (16:1) in the face of great pressures. We can find joy even in difficult pressures in context to engaging in the Trinitarian conversation.
	요 13-17장에 명시된 진리들, 약속들, 명령들과 권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커다란 압박에 직면해서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16:1) 성숙한 기쁨으로 (15:11) 행하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에 참여하는 맥락에서 어려운 압박에서 조차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

11“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My joy may remain in you...” (Jn. 15: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 (요15:11)

1“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you should not…stumble [fall away; NIV, ESV].”
(Jn. 16: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넘어지다; NIV, ESV]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요 16:1)

* 1. Jesus spoke truths to His young leadership team to prepare them to thrive spiritually in the face of a multi-faceted crisis coming on them—similar pressures will be experienced in the end-time Church.
	예수님은 닥쳐오는 다면적 위기를 직면할 그분의 젊은 리더십 팀에게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진리를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 교회는 유사한 압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 The crisis of ***Jesus being taken from them in death***. After 3 1/2 years of being daily in His presence and rejoicing in His light, suddenly He was gone, leaving them in despair.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는 위기**.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빛 아래 즐거워한 3년 반 이후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고 가셨다.
		2. The crisis of the ***pain of betrayal*** from a trusted friend and team member—Judas.
		믿었던 친구이자 동료인 유다로부터의 **배신당하는 고통**의 위기
		3. The crisis of ***denying Jesus*** that very night as one of their greatest ***personal failures***.
		가장 큰 개인적 실패로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위기
		4. The crisis of ***unbelief*** probably leading them to ask if the promises that He gave were real.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이 진짜인지 묻도록 이끌 **불신**의 위기
		5. The crisis of revival in becoming leaders with ***significant responsibilities and workload***.
		**중대한 책임들과 업무량**이 주어지는 부흥의 때에 리더가 되는 위기
		6. The crisis of the ***pain of the rejection*** by many in their nation and by friends and family.
		자신들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또 친구와 가족들에 의해 **거절당하는 아픔**의 위기
		7. The crisis of ***physical persecution*** in facing beatings, prison, and the threat of martyrdom.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위협을 직면하는 **신체적 박해**의 위기
	2. Believers in the end-time Church will face similar pressures including being betrayed, overcoming personal failures (lukewarmness), the workload and responsibility associated with the billion-soul harvest, along with the crisis of persecution, the threat of martyrdom, etc. His people will be faithful and fearless in the face of death by being lovesick for Jesus and filled with Trinitarian joy.
	마지막 때의 교회 믿는 자들은 배신당하고, 미지근함과 같은 개인적 실패를 극복하며, 추수된 수십억의 영혼에 따른 과중한 책임과 업무량, 핍박과 순교의 위협 등을 포함한 유사한 압력을 직면할 것이다.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 병에 빠지게 되고 삼위일체의 기쁨에 충만하여 신실하고 당면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다.
	3. The truths and promises in John 13-17 give us the necessary paradigm to interpret God’s leadership properly as expressed in the 150 chapters on the end times found in the Scriptures.
	요 13-17장의 진리와 약속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150장 에서 표현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리더십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준다.
	4. We must seek to go deep in our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John 13-17 now in order to be equipped to train those who will begin to be leaders in the body of Christ in the next 20-30 years.
	At this time, we are only grasping the “mere edges” of the glory of these 5 chapters (Job 26:14).
	우리는 지금 요 13-17장을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 깊이 들어가도록 추구해야한다. 이로써 다음 20-30년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도자가 될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다섯 장의 영광의 “가장자리” 정도 만을 파악하고 있다 (욥 26:14)

14Indeed these are the mere edges of His ways, and how small a whisper we hear of Him!
But the thunder of His power who can understand?” (Job 26:14)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26:14)

1. A summary of the message of John 13-17: Union with God and His family
요한복음 13-17장의 메시지 요약 : 하나님과 그분의 가족과의 연합
	1. My summary of Jesus’ message is in how He related to the Father as a “man filled with the Spirit.”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요약은 “성령 충만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와 관계하셨는가에 대한 것이다.
	2. The union in the Trinity reveals the nature, quality, and intensity of Their love and relationships.
	Our ability to receive the love of God and to love God and others is anchored in the reality of how the Trinity relates to One Another. Thus, it is practical to grow in understanding of the Trinity—
	the way that God relates to God is our ***model*** and ***source*** that equips us to love God and others.
	삼위일체 안에 있는 연합은 그분들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본성, 질, 강도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에게 어떻게 관계하시는지에 대한 실체에 닻을 내리는 것이다. 이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에 자라가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준비시키는 **모델**이자 **근원**이기 때문이다.
	3. In John 14, Jesus described His relationship to the Father as a Man (14:7-11) in order to present it as the model of how the redeemed are to relate to the Father by the Spirit (14:12-27).
	요 14장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묘사하셨는데 (14:7-11), 구속 받은 자들이 성령님에 의해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제시하셨다 (14:12-27).

10“Do you not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The words that I speak to you I do not speak on My own authority; but the Father who dwells in Me does the works…
20At that day you wi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in Me, and I in you.” (Jn. 14:10, 20)
10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14:10,20)

* 1. Jesus taught that the Father lives in the Son and the Son lives in the Father (Jn. 10:38; 14:10-11, 20; 17:11, 21-23). This is not a doctrinal lesson about Jesus’ deity, but concerns His Spirit-filled humanity—it is our model on how to relate to the Lord.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사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사신다고 가르치셨다 (요 10:38; 14:10-11, 20; 17:11, 21-23).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교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 어떻게 관계해야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모델이다.
	2. The gospel of John highlights at least 5 aspects of the mutual indwelling or mystical union of the Father and Jesus—Their mind (thoughts), heart (feelings), will (values/decisions), words (speech), and works (actions). They think, feel, speak, and act in ways that are fully in unity with each Other. Each of the three Persons are one in heart, mind, will, speech, and action so that they act as One.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예수님 간의 상호 내주하심 또는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 적어도 5 가지 측면을 하이라이트한다. 이것은 그분들의 사고 (생각들), 마음 (감정들), 의지 (가치나 결정들), 말씀들 (연설) 그리고 일하심 (행동) 이다. 그분들은 서로에게 완전하게 연합된 방식들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신다. 세분의 각 인격체들은 마음, 생각, 의지, 말씀과 행동에 하나이시기에 한 분으로서 행하신다.
	3. To be “in” the Father or the Son includes being in agreement with what He thinks, feels, and says. This lifestyle is not out of reach because Jesus sent a Helper to us—the Holy Spirit (Jn. 14:16, 26).
	아버지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지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생활방식은 도달하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성령님(요 14:16, 26)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4. Jesus invited His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intimacy shared in the mutual indwelling of the Father and Son (Jn. 14:10, 20). They enjoy, celebrate, honor, and partner with each other in all that They think, feel, say, and do. We begin to participate in this reality by ***thanking God*** for this and ***asking for more insight*** into the way. As we do this, we posture ourselves to receive more.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하시는 친밀함에 참여하라고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셨다(요 14:10, 20). 그분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서로를 즐기고, 축하하고, 존중하며 동역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 **감사하고 더 많은 통찰력을 주시길 구함**으로써 이 현실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스스로 취하게 된다.
	5. Each Person in the Godhead enjoys and fully engage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Jesus has joy and enthusiasm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He is moved in loving the Father and in being loved by the Father. His love is never mechanical; He is not disinterested, bored, or distant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This is a picture of how Jesus loves and relates to His people.
	신격의 각 인격체는 서로와의 관계를 즐기며 완전히 참여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기쁨과 열정을 가지신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며 감동 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기계적이지 않아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무관심하거나 지루하거나 거리감을 두지 않으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와 그분의 백성들과는 어떻게 관계하시는지에 대한 그림이다.
	6. The delight that Jesus has in the Father’s words and deeds gives us insight into how He feels about our words and deeds when walking in agreement and partnership with Him (bridal paradigm).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과 행동들에 가지고 있는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께 동의하며 동역할 때 (신부의 패러다임)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7. Our words are in His heart, and His words are in our heart—this is foundational to our union (15:7).
	우리의 말들은 그분의 마음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연합의 기초이다 (15:7).
	8. Hosea taught that returning to the Lord includes bringing words to speak to Him (Hos. 14:1-3).
	호세아는 주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가르쳤는데, 이는 그분에게 말할 말씀을 가져오는 것을 포함한다
	(호 14:1-3).

1O Israel, return to the Lord…2Take words with you, and return to the Lord. (Hos. 14:1-2)
1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호 14:1-3)

* 1. In Deuteronomy 30, Moses taught that the command to love and obey God was not *too mysterious* (too hard to understand), nor was not it *far off* (outside their ability), nor did they need to *ascend
	to heaven* (have a heavenly encounter), nor *go overseas* (to receive it at a revival center) to do it. His point is that the power to love God is so near us—***in our mouths*** (30:14)—by speaking to God.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가르쳤는데, 이 명령은 행하기에 신비롭 지도 않고 (이해하기 너무 어렵지 않다) 너무 멀지도 않으며 (능력 밖의 일이 아니다), 하늘에 올라 갈 필요도 없고 (천상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 이것을 하기 위해 (부흥의 장소에서 이것을 받기 위해)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이 그분의 요점이다. 즉, 하나님께 말하는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것이다 (30:14).

11This commandment…is not too mysterious for you, nor is it far off. 12It is not in heaven, that you should say, “Who will ascend into heaven for us and bring it to us…?” 13Nor is it beyond the sea, that you should say, “Who will go over the sea for us and bring it to us…?” 14The word is very near you,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you may do it. (Deut. 30:11-14)
11…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12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13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14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 30:11-14)

* 1. It starts with words—the Christian life is an ongoing dialogue with a Person. Jesus’ words are *spirit and life* (Jn. 6:63), and His Word is *living and active* (Heb. 4:12). Over time, what He thinks, feels, says, and does gradually fills our hearts. Simple phrases spoken to God will impact our emotions.
	이것은 말씀으로 시작한다. 크리스천의 삶은 사람이신 [인격체] 그분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요 6:63).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히 4:1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지가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게 된다. 간단한 문구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2. Most of our life consists of words and deeds. Our *words* convey what we do in our *inner man* (thoughts and feelings) and our *deeds* relate to we do with *outer man* (our actions).
	우리 삶의 대부분은 말들과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말들**은 우리 **속사람** (생각과 감정)이 무엇을 하고 있나를 전해주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겉사람** (행동들)과 관련이 있다.
	3. Jesus’ words filling our heart is foundational to maturing in the Trinitarian conversation (Jn. 15:7). The more that we engage in conversation with His words in our heart, the more His deeds will flow through us with authority in partnership with Him.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예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토대가 된다 (요 15:7).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예수님과 동역할 때 더 많은 그분의 행동들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 나갈 것이다.

7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you will ask what you desire, and it shall be done for you. 8By this My Father is glorified, that you bear much fruit… (Jn. 15:7-8)
7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8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 (요 15:7-8)

* + 1. Often, we can ask the Spirit to help us engage in the Trinitarian conversation, the pinnacle of human experience of being in loving union with God and with one another (17:21-26).
		자주, 우리는 성령님께 삼위일체의 대화에 더 참여 하도록 도와 주시길 구할 수 있다. 이 대화는 인간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는 연합을 경험하는 최정점이다 (17:21-26).
		2. We can speak with God regularly in short conversations—sometimes only 10 to 20 seconds, or 2 to 3 minutes, at times much longer.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짧은 대화를 가질 수 있다. 때로는 단지 10-20초 또는 2-3분 어떤 때는 좀 더 길게 하는 대화이다.
		3. At first, it may be challenging to engage in the Trinitarian conversation on a regular basis, but this will change as we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 language and speak more consistently in our “prayer conversation” with the Lord, resulting in our heart flowing in it.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주님과 하는 우리의 “기도 대화”에서 그 언어들에 좀 더 익숙해지고 더 지속적으로 대화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흐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The Spirit is in you so just start speaking Bible verses and truths to the Lord. He will teach you more and more as you verbalize it to Him (and journal it) over next months and years. This is the same way we learned to talk in our homes as children.
		성령님은 당신 안에 계신다. 그럼으로 주님에게 성경 구절이나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라. 당신이 그 분에게 입술로 소리내어 말할수록 (그리고 저널을 적으면) 앞으로 몇 달 몇 년에 걸쳐 성령님이 더욱 더 당신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5. When I first started using apostolic prayers in my prayer times it was very awkward.
		내가 처음으로 사도적 기도들을 나의 기도 시간에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무척 어색했었다.
	1. I see 5 parts of the “intimacy process” with God—they overlap and flow together, yet it begins with *knowing* the truth mentally (Jn. 8:32). The 5 parts are *knowledge*, *conversation*, *illumination*, *inspiration*, and then *transformation* which is deeply satisfying, pleasurable and unifying.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과정”에 5 부분이 있다. 이것들은 중복되기도하고 함께 흘러도 가지만 진리를 정신적으로 아는 것(요 8:32)에서 시작한다. 다섯 부분은 (진리의) 지식, (진리와) 대화, 빛이 비춰짐, (성령이 주시는)영감, 그리고 변화이다. 이 변화는 깊게 만족하며 즐겁고 하나 되는 것이다.

32An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Jn.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8:32)

* 1. It is a common error to try to live the Christian life without Christ—*without conversation with Him*. Some are “experts” in Christian community and ministry—yet without growing closer to Christ.
	We cease from striving to love God and people by continually returning to conversation with Jesus that empowers us to love instead of striving in our human strength to love by our own efforts.
	크리스천의 삶에서 그리스도 없이 살려는 것은 흔한 오류이다. 즉 주님과의 대화가 없다. 어떤 이들은 크리스천 공동체와 사역에서 “전문가”이지만 그리스도와 더 가까 와지는 것에서는 자라지 못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랑하고자 힘을 다해 분투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분투를 중지한다.